

11/28/21 사랑교

회해의 삶

빌몬 1:8-18

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을 화해 하기 위해 땅에 오셨다. 바울이 한 일이 예수께서 하신 일의 모형이다. 불의한 오네시모를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 화해시켰다. 오늘날 오네시모는 바로 우리들이다. 4가지로 생각코자한다.

첫째: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.

(11~12절) "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..." "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무익한 자였다." "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..." "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됐다."

둘째: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화해 시키셨다.

(13절) 예수의 고난을 통해 구원된 우리는 쓸모있는 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.

셋째: 예수는 우리를 세상과 화해시켰다.

(16절) 종의 신분이 오네시모(우리)가 자유인이 되어 세상에서 유익한 사람이 됐다.

넷째: 예수는 우리를 화해의 제물이 되게 하신다.

(18절)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땀을 자기가 흘렸다고 한다. 우리도 화해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. 이것이 곧 사랑이다.

맺음: 화해의 은총을 받고 사는 우리도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.

심고후찬송(동) 330장
"고통의 땅에 벗으려고"